

‘상처’는 ‘추억’처럼 달콤하지 못하다



조세희는 대표적인 과작(寡作)이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는 오랜 시간 눈길이 머문다. 1965년 데뷔 후 띄엄띄엄 작품을 발표하다가 1975년 <뫼비우스의 띠>를 필두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작을 내놓았을 때도 그랬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하 《난·쏘·공》)은 지옥에 살고 있는 난장이들의 ‘지옥 일기’다. 이들은 이를 악물며 힘겨운 하루를 버텨내고, 실낱 같은 기대감을 갖고 하늘 위로 공을 쏘아 올린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살고 있는 공간은 행복이 부재하는 동네 ‘낙원구 행복동’이다. 인물들은 이곳에서 행복의 날을, 천국을 절실하게 기다린다. 하지만 지난한 꿈이다. 난장이 아버지는 칼갈기, 채권 매매 등을 해가며 낮은 포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어머니와 형들 역시 힘겨운 노동현장에서 버거운 땀을 흘린다. 곱고 귀여운 딸 영희. 영희가 행복동에서 배우는 것은 ‘절망’이다. 영희는 추위에 떨며 손과 발, 무릎, 이가 맞부딪치는 소리를 절망이라 부른다. 작가는 어린 막내의 꽃잎에 절망의 상처가 내려앉음을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것이 ‘난장이 일기’에게 닥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1970년대의 거대 성장주의 이면에 존재했던 난장이들의 만신창이 된 삶이다.

《난·쏘·공》이 첫선을 보인 것은 1978년 6월 5일(문학과지성사 판). 소설집은 《난·쏘·공》을 비롯하여 1975년부터 1978년까지 조세희 씨가 각종 문예지에 발표했던 12편의 단편들로 묶여 있다.

《난·쏘·공》은 우리문학사의 한 ‘기록’이기도 하다. 발행 20년이 채 되기 전인 1996년에 100쇄를 돌파했고, 지난 2000년에는 조세희 씨의 장남 중협 씨가 운영하는 ‘이성과함’으로 출판사를 옮겨 초판발행 24년 만에 150쇄를 돌파했다(총 60만 5천 여부 판매). 간간이 밀리언셀러가 나오기는 하지만 정수 높은 소설집이 20년 넘게 60여만 부 팔렸다는 것은 ‘기네스 북’에 오를 만한 ‘사건’이다. 소설집은 아직까지도 매년 2, 3만 부씩 팔려나간다.

작가는 난장이들의 처진 어깨를 강렬한 리얼리즘으로 표현한다. 조세희 특유의 정제된 단문은 현실을 왜곡하지 않는다. 거인들 틈에서 절박하게 천국을 기다리는 난장이들의 모습은 가엾다. 작가는 그들의 숨소리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악에 바친 인간의 형상을 절묘하게 드러낸다. 소설 속 난장이 가족의 삶은 무덤보다 끔찍하다. ‘상처’는 ‘추억’처럼 달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철거당하는 보금자리를 보며 한숨을 내뿜는 소시민들, 기계에 잘려나간 손가락을 바라보는 공장 노동자들. 반복되는 절망의 현실은 책이 발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책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소도구 역할을 한다.

그동안 《난·쏘·공》은 네 번에 걸쳐 표지를 바꿨다. 1978년 초판본 표지의 장정은 오규원 시인이 백영수 씨의 삽화를 이용해 만들었고, 이후 문학과지성사의 ‘문지소설명작선’에 실리면서 표지를 개선하고 판형도 조금 키웠다. 현재의 표지는 판화가 이철수 씨의 작품이다. 지구를 떠난 난장이가 머리를 뒤로 젖힌 채 거꾸로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절망을 벗어나 다른 별에 착륙한 난장이는 천국을 만났을까?

투기업자의 가방 속에서 입주권과 돈을 훔쳐 동사무소로 향하는 영희. 이제 천국에 온 것일까? “산 것이죠?” “네 샀어요!” 이제 정말 다 된 것일까? 숨을 턱에 걸고 동네에 도착했지만 영희는 어금니를 악물고 운다.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부르는 악당은 죽어버려.” 아직도 난장이들의 지옥길은 끝나지 않았다. 지옥을 만나보지 못한 ‘천국’의 거인들에게 이 소설을 권한다. **★**

김청연 기자